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자기 인식을 통한 신체표현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은비

# 자기 인식을 통한 신체표현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유근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은비

# 인 준 서

박은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8년 ‘현재의 미완성’이라는 석사 학위 청구 전시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고, 작품을 통하여 나타는 인물의 모습과 다양한 신체 표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예술은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예술을 통해 삶을 바라보기도 한다. 본인 또한 본인의 작업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본인의 삶에 대하여 깨닫기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한 과정은 자아 성찰을 하고 자기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왜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본인은 2014년부터 ‘개인의 역사’ 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한 사람의 삶이 개인의 배경이나 개인보다 더 큰 역사와 시대상황 안에서 흘러 살아간다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작업이었다. ‘개인의 역사’ 안에서의 ‘나’는 모두, 시간과 상황 마다 달라지는 인간의 모습이었고, 큰 흐름 속에 놓여 그 흐름을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은 그 동안의 작업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답답함과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로는, 그림 속 ‘나’라는 사람이 개인의 감정적, 정서적 표출만으로 국한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꼭 자기 자신을 바라 봐야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었다. 자기 인식의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필요하고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

본인의 작업은 현재까지도 자아 성찰적인 성격을 띠며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자기 인식에서는 과거를 되돌아봐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이 ‘기억’을 ‘몸’의 기억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 뒤로 보내고 나면 쉽게 왜곡되고 변질 되어 우리의 의식 속에 저장된다. 하지만, ‘몸’의 기억은 우리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스스로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신체가 스스로 말하는 움직임에서 나온

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인에게 인물과 신체는 표현 방법으로써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본인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음으로써, 자기 인식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작품에 인물의 모습과 신체가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자기 인식 .....	3
2. 인물과 신체 표현 .....	9
① 자화상 .....	9
② 부유하고 분해되는 신체 .....	15
③ ‘현재의 미완성’의 의미 .....	21
III. 결론 .....	26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부 록

## 작 품 목 차

【작품1】 대화,순지에 연필,펜,194.0x130.3cm,2016 .....	7
【작품2】 하늘,순지에 연필,194.0x130.3cm,2016 .....	10
【작품3】 창가에...,순지에 연필,37x34.5cm,2018 .....	11
【작품4】 생각을 고민하다,순지에 연필,37x34.5cm,2018 .....	12
【작품5】 누군가의 식사,순지에 연필,130.3x97.0cm,2014 .....	14
【작품6】 몸을 찾아서,순지에 혼합재료,76x130.5cm,2016 .....	15
【작품7】 몸1,순지에 혼합재료,194.0x130.3cm,2018 .....	17
【작품8】 몸2,순지에 혼합재료,194.0x130.3cm,2018 .....	18
【작품9】 웃는 사람,순지에 연필,먹,수성 색연필,39x34.5cm,2018 .....	19
【작품10】 현재의 미완성,순지에 연필,먹,137.5x66cm,2018 .....	22
【작품11】 현재의 미완성2,순지에 연필,먹,137.5x66cm,2018 .....	23
【작품12】 현재의 미완성3,순지에 연필,먹,137.5x66cm,2018 .....	23
【작품13】 청계천,순지에 연필,파스텔,162.0x130.3cm,2018 .....	24

## 도 판 목 차

- 【도판1】 프리다 칼로, 두 명의 프리다, 캔버스에 아크릴, 172x172cm, 1939 ..... 6
- 【도판2】 김정희, 세한도, 수묵화, 23x69.2cm, 1844 ..... 13

## I. 서론

예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술은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그 동안 스스로의 내면을 끈질기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였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업은 과거의 일들을 꺼내보고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본인은 살아가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겨나는 일들을 겪었을 때, 원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느꼈다. 어떤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며 비워진 마음을 채우고, 살고자 하였다. 그러한 생각 안에서 연구자는 가장 먼저 본인 스스로를 비추고자 하였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주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자기 인식은 지나온 과거와 일들을 화해하고, 인정하며 보기 싫은 것들도 봐야만 하는 일이다. 또한, 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자기 인식은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가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인간상을 각자의 방법으로 표현했다. 본인은 자기 인식이 자기 주체성과 자아 정체성을 다루는 것이고, 곧 '존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인식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좀 더 깊게 알아보려 한다. 본인은 먼저 우리가 왜 자기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그것이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장에서 자기 인식의 이유와 목적을 시작으로, 자기 인식을 통하여 나타난 프리다 칼로의 작품과 본인의 작품을 비교, 설명 할 것이다. 본인은 앞서, 되돌아보는 일에서 '몸'의 기억으로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서 2장에서는, 자기인식을 통하여 나온 본인의 작품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자화상 그리고 두 번째는 분해된 신체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재료적 표현 방법을 통하여 밝힐 것이다. 본인이 재료를 쓰게 된 배경과 그것이 어떻게 본인의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작품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석사청구전의 전시 제목인 ‘현재의 미완성’의 뜻과 작품을 함께 설명하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에 대하여 작품 속 의미를 해석하도록 한다. ‘현재의 미완성’은 자기 인식이 곧 ‘존재’와 맞닿아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 II. 본 론

### 1. 자기 인식

본인은 ‘나’라는 주체에서 눈이 트이고 모든 세상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도 해당 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세계와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자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깨닫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주체 안에서도 여러 역할을 가진 자아를 가지고 있고, 생각한다 한들 그 생각 또한 개인의 카테고리 안에서 돌아가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에게 자기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내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곧, 바깥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다. 본인은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나’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의 말 중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仁)이 된다는 뜻이다. 자기 해방과 자기 자유는 결국, 자신의 의식 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주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sup>1)</sup>

본인이 가장 먼저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움’이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본인은 어릴 적부터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고

---

1) 페터 비에리, 문향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p140

그리고 곧 죄책감을 쌓으며 자라났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오랜 시간 자신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결국 부끄러움은 나 자신을 반성하며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본인은 자신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보려 하였다. 본인은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차후에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성을 찾게 되기를 바랐다. 페터 비에리는 ‘자기 결정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표현은 결코 허공의 메아리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 내면의 내적 구조까지 변화 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sup>2)</sup> 또한, 자기 인식의 과정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과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sup>3)</sup>

‘만일 내가 매 순간마다 자신의 과거가 드리우는 그림자와 외부의 영향이 미치는 자기장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결정권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페터 비에리는 자기 인식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기억이 휘두르는 전횡을 막는 방법은 바로 이해하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sup>4)</sup>

따라서 자기 인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굴레 안에 빠지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주체성과 맞닿아야 한다. 그것은 끝내, 나 자신이 어떤 환경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나의 걸음으로 곳곳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이다.

자기 인식이 내적 구조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인식을 통한 예술이 과거를 또다시 직면할 때, 치유의 과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한다.

---

2) 페터 비에리, 문향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p17-18,p22

3) 페터 비에리, 문향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p26

4) 페터 비에리, 문향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p13, p68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본인에게 또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었고,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고통이 작품으로 승화 되어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본인은 어렵지 않게 예술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고통을 직면하여, 작품을 탄생시킨 예술가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많은 화가들은 고통을 매개체로 수없이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남겼다. 본인은 고통과 위로움이 예술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그것을 직면하기 전까지 그것들은 그저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고통을 바라봐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작품을 위한 긴 시간과 노력을 거듭 거쳐야 그것을 비로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본인은 그 수많은 화가들 중, 프리다 칼로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한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간 화가였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그녀만큼 자화상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그린 화가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녀에게 자기 자신은 작품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다. 그녀는 자화상을 그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기도 했을 것이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앓던 소아마비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악몽 같은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된다. 그 날 일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되었고, 그녀는 죽는 날까지 육체적 고통을 그림자와 같이 안고 살아가야 했다. 어릴 적사건들은 그녀에게 자신을 타자 화하여 또 다른 '상'으로 바라보는 일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

5) <https://terms.naver.com>[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이주현, 『그리다.너를』, 아트북스, 2015



【도판1】 프리다 칼로, 두 명의 프리다, 캔버스에 아크릴, 172x172cm, 1939

자기 인식을 거친 예술은 대개 자신의 과거를 들춰보고,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억’이나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 기억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아를 확인하고 현 시간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한다.

프리다 칼로의 【도판1】을 살펴보면, 하나의 인물이 둘로 나누어진 자아로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프리다 칼로가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와 이혼 후 그려진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리베라의 사진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프리다의 손에는 그녀의 심장에서 핏줄을 끊어내고 있다. 6) 프리다의 작품은 배경보다 내용과 경험을 토대로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하여 내면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두 명의 프리다가 리베라에 대하여 아파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두 가지의 내면을 엿 볼 수 있다. 프리다는 분열된 자아의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6) 전준엽, 『나는 누구인가』, 넥서스, 2011, p170~171 참고

그녀는 이혼을 경험한 후, 리베라를 사랑한 과거와 이혼을 한 현재까지의 전 과정을 대면하고자 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그림 속 두 명의 프리다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현재의 일을 회피하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았다.



【작품1】 대화,순지에 연필,펜,194.0x130.3cm,2016

프리다 칼로와 비교하여 본인의 【작품1】 을 살펴보면, 똑같이 한 인물이 둘이 되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역시 기억과 경험에서 자아를 확인하는 존재로서 인물이 그려져 있지만, 직접적인 사건을 상징이나 소재로써 표현하여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본인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서, 과거의 일들이 아직까지도 본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들을 외면할수록 나이를 먹어가며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이 같은 면을 남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본인은 과거의 어린 ‘나’와 놀이하듯 위로해 주는 등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써 【작품1】을 그리게 되었다. 본인은 프리다 칼로와는 달리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혼재되어 있는 자아라면, 프리다 칼로는 과거와 현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아의 분열상을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인식 시켰다.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말한다. ‘내 그림들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적어도 몇 사람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리라 생각한다. 혁명적인 것은 아니다. 왜 내 그림이 호전적이기를 기대하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림이 내 삶을 완성했다. 나는 세 명의 아이를 잃었고, 내 끔찍한 삶을 채워줄 다른 것들도 많이 잃었다. 내 그림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다.’

‘프리다 칼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그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둡게 내리 깔 고통과 아픔이다. 그녀는 전 생애에 걸쳐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도, 그것을 맞대어 보며 끝내 그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불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녀는 평생을 절망 속에 살았지만, 죽음보다 삶을 선택했고, 고통을 승화하여 예술의 혼을 보여줬다.

때로 본인은 자신을 인식 하는 일들이 나 자신에게 고하는 독백으로 남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면서도 본인 또한 그림이 나의 삶 자체가 되기도 하며, 그림 여러 곳 인물들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음으로써,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본인도 프리다 칼로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현재에서 살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음으로써 작업을 계속 해나가려고 한다.

끝으로, 자기인식을 통한 작품은 과거와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난 인물과 신체 표현 방법을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 2. 인물과 신체 표현

### ① 자화상

자화상은 예로부터 화가들에게 수없이 많이 그려져 왔다. 자화상은 화가들의 자의식과 내면을 보여주며 예술가로서의 본질을 탐구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연구 대상이었다. 동양에서 또한 ‘전신사조(傳神寫照)’라 하여 인물을 그릴 때에는 단순히 얼굴을 그리는 것을 떠나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까지 그리고자 하였다. 본인의 자화상 또한 그 범주와 다를 바가 없다. 본인은 자화상을 감정의 표현, 또는 내면의 본질을 나타내는 등 하나의 같은 얼굴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냄으로써, 여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려져 왔다.

본인에게 자화상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작업을 하는 데에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작게 나의 모습을 드로잉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작업까지, 본인의 작업은 여러 갈래로 확장 되어 가고 있으나 큰 맥락에서는 같은 주제를 잡고 있다.

본인은 자라는 성장과정 동안,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 어느 곳에서도 모나지 않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언가 자꾸 불편하고, 거슬렸던 작은 거스를 같은 것들이 생채기를 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꼈던 내가 사실은 문제들을 덮고 ‘괜찮다’고만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일은 그 원인들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이것은 지금껏 본인의 삶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을 시작으로 본인에게 그림은 가장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찾을 수 없었던 돌파구가 되었고,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를 내 안에까지 끌어들이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본인은 이렇듯, 그림은 자기 치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더욱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작품2】 하늘, 순지에 연필, 194.0x130.3cm, 2016

본인은 자화상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으로 【작품2】와 같이 어떠한 배경과 상황 안에 돌아가고 있는 인물로 나타났고, 인물 대부분 표정이 없고 눈동자가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었다.

얼굴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본인 또한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 그리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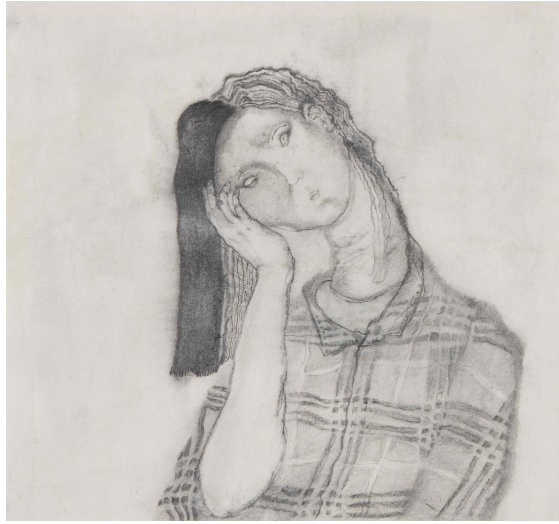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인물의 전체를 다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품 속 인물은 눈이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사람보다는 시선을 피하고 초점을 잃은 모습이다. 본인은 인물의 표정과 눈동자의 표현으로 여러 감정들을 표출하기보다 배경 안에서 흔들리며 버티나가는

인물로써 그려지고 있다.

배경은 사람보다도 더 큰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다. 본인은 풀과 나무들이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로 의미를 부여 하고자 하였다. 작품 속 인물은 수동적인 인물로, 스스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취지고 바라봐지는 대상이다.



【작품3】 창가에..., 순지에 연필, 37x34.5cm, 2018



【작품4】 생각을 고민하다, 순지에 연필, 37x34.5cm, 2018

【작품3】 과 【작품4】 는 앞서 작업을 그려 나가면서 자화상을 처음 시작하던 때로 돌아가 인물에만 집중하여 그려본 자화상이다. 인물에만 집중하면 내면의 상태에만 집중하여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품4】 부터는 눈동자를 그리며 초점과 시선을 가진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품4】 에서 나타난 눈동자는 어떠한 사건이나 과거를 바라보았을 때 눈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렸다. 그 모습은 눈동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작아진 동공만을 그려 사건 속 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의 그림을 살펴보면, 색 면보다는 선적인 요소가 많고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인이 긋는 선은 예쁘게 긋거나,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이 완전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중간에 끊기고, 희미하게 사라지고 연결되지 않는 선들이다. 그러한 선들을 본인은 연필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필은 수정이 쉽고, 문지르면 쉽게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눈에 띄게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단연 연필이다.

연필은 누구라도 특별한 미술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료이다. 본인에게도 연필은 어릴 적 가장 먼저 손에 잡았던 그림 도구였을 것이고,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도구이다. 따라서 연필은 언제고 편안하게 드로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연필은 가장 솔직하고 꾸밈없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연필과 붓은 아주 다르면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건성과 수성이라는 물성의 차이가 있지만, 연필과 먹 선에서 각자의 필선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연필도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떨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붓을 사용할 때에도 예리하고 예민한 붓끝으로 그려지는 섬세한 감정 선들에서 영향을 받았고, 연필이 지워지는 먹 선과 같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선’이라는 것은 ‘점’과 ‘면’보다 더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심리나 내면의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판2】 김정희,세한도,수묵화,23x69.2cm,1844

【도판2】 ‘세한도7’를 보면 듽성듬성한 잎 파리와 비스듬한 집 한 채는 얇고

7) 유흥준,『김정희』,학고재,2006,p227~231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으로 화제에 썩어 있듯이 그의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이다. 이상적

가는 선으로 간결하게 그려졌다. 성글게 이어진 선들이 썰렁 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유배당했던 김정희의 쓸쓸했던 마음을 아직까지도 느낄 수 있다.



【작품5】 누군가의 식사, 순지에 연필, 130.3x97.0cm, 2014

본인은 김정희의 【도판2】 ‘세한도’를 보고 연필의 선에서도 섬세한 감정선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작품5】 에서와 같이 연필의 선만으로 간결하게 인물들을 그려가는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본인의 선은 주로 짧게 끊어지며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선들이 주로 사용 되었다. 인물의 피부를

---

은 추사의 귀양살이하는 동안 연경에서 구해온 책을 보내드렸고, 이상적의 변함없는 사제 간의 정에 감사하는 뜻으로 <세한도>를 그렸다.

지나가는 선에서는 상처를 준다는 생각으로 연필을 누르기도 하고 뽀족하게 깎아 날카로운 선으로 긋기도 하는 등 불규칙하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선을 그었고, 따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선만으로 작품 속 이야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본인의 작품에 수 없이 그어지고 사라지는 선들은 희미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타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며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부유하고 분해되는 신체



【작품6】 몸을 찾아서, 순지에 혼합재료 76x130.5cm, 2016

본인은 자화상을 그리고, 그림 속 ‘나’의 모습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인물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다. 본인은 앞서, ‘몸’의 기억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기억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신체에 기록되는 이야기들을 그려왔다. 【작품6】 <몸을 찾아서>라는 작품은 체험을 한 몸이 정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또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일들을 무의식 적으로 행동하는 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신체가 기억하고 기록된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작업을 구체적으로 구상 하게 되었다. 본인에게 '신체, 몸'이라는 주제는 자화상과 연결되어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재다. ‘몸’

이라는 주제는 ‘신체’를 그리는 데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풍경과 식물을 그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풀과 나무 등 가로수를 그릴 때에도 하나의 인격체와 같이 그려지고 나무 또한 사람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사람 으로서 그려져 있다. 그림 속의 모든 인물, 사물 또는 미물까지도 주체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시선을 가진 개체로써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본인에게 ‘몸’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만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물과 인물이 자신의 주체와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몸의 언어’로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과 ‘신체’가 주체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서 정신과 몸이 또다시 분리되어 새로운 자아가 되기도 한다.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해체 되고 있는 자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7】 과 【작품8】 의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 속 신체는 대부분 잘려서 분해되고, 비틀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꿈틀 대 듯이 움직이며, 신체들은 부유하고 있고 핏줄과 작은 털, 주름, 땀구멍과 모공까지 보인다. 거울을 보았을 때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세세한 부분, 그리고 신체의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이나 핏줄까지 서로 뒤엉켜 있다. 본인은 신경이 예민해질 때 피부의 땀구멍이 열리고, 핏줄들이 꿈틀거리며, 머리카락과 작은 털들까지 곤두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본인에게는 그러한 경험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해체되며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감각에 집중했을 때, 본인은 몸의 일부 하나하나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신경질적인 부분들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만의 언어를 가진 모습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작품7】 몸1,순지에 혼합재료,194.0x130.3cm,2018



【작품8】 몸2,순지에 혼합재료,194.0x130.3cm,2018

같은 맥락으로, 본인은 종이가 피부 껍질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 왔다. 동양  
화에서 사용하는 한지는 타 종이와 비교 했을 때 아주 얇고 연약한 종이다.

따라서 종이의 질감이 피부와 같이 유약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피부 껍질 위에 새기고 상처 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

<2016 작가 노트>

요즘 나는 내가 어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내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종이 위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본인은 화판 위에 종이를 붙여, 피부를 만드는 방법과 배접을 하여 피부에 층을 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한다.



【작품9】 웃는 사람, 순지에 연필, 먹, 수성 색연필, 39x34.5cm, 2018

배접을 하게 되면, 둘둘 마는 형식을 가지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펼쳐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내면을 표현하는 본인의 작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펼쳐 봐야 하고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종이를 깨끗하게 붙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종이의 밀림을 조절하며 피부 껍질을 고정시킨다는 생각으로 붙여 나간다.

본인은 배접을 하고 작업을 하는 데에도 주로 아주 얇은 순지를 사용하는데 순지는 위의 【작품9】와 같이 얇은 재질감 때문에 배접을 했을 때 아래의 그림이 비춰지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림에 레이어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피부와 동일시 할 수 있게 했다.

보통 배접은 작품의 보관을 위해 주로 사용 되는 방법으로 작품의 완성 후에 배접<sup>8)</sup>을 하지만, 본인의 작업에서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린 후 작업 과정 안에서 배접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덧붙여 그림을 그려 나가며 작업을 완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배접을 하면서 거의 모든 면을 내 손으로 쓸고 만지며 다시 태어난다. 종이를 피부와 같이 생각하며 작업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 ‘신체’라는 주제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에게 신체는 ‘체험으로 기억하는’ 존재이다. 같은 의미로 본인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종의 연필로 새긴다, 연필로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이다. 종이 위에 색을 칠한다는 것은 붓으로 종이를 만진다, 붓으로 종이를 스친다는 촉각적인 느낌을 떠올리며 작업을 한다. 더욱이 그것이 종이 에게도 체험과 경험으로 문신처럼 새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은 구도에서 크게 어긋나는 형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깨끗하게 지우기보다 휴지로 문지르고 희미하게 남은 상태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다시 선을 그어 그리곤 한다. 이 과정은 종이 또한 몸체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작품도 신체 중 하나의 일부가 되어 껍질과 같이 존재하기를 원했다. 본인에게 몸은 여러 가지 의미

---

8) 서정호,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경인 문화사, 2008, p232

배접[表具]이란 걸 '表', 갖출 '具'로 그대로 걸을 꾸미는 작업을 의미한다. 배접은 서(書), 화(畵), 자수(刺繡), 탁본(拓本), 섬유공예(纖維工藝 : 染織, 手織 등), 사진 등의 작품을 보존, 보관, 전시하기 위하여, 족자, 액자, 병풍, 서화첩(書畫帖, 帖冊), 횡권(橫卷, 두루마기) 등으로 표장(表裝)하는 제반 기술적 방법을 포함한다.

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다.

### ③ ‘현재의 미완성’의 의미

지금까지 본인의 작업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과거를 통한 자기 인식과 자아 탐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본인은 작업을 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본인의 움직임에 대하여 생각을 발전하게 되었다. 항상 지금 이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또는 과거와 더 멀어지기 위해 본인은 계속 해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현재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공허함과 부끄러움이 있었다. 다음날, 더 움직이고 더 많은 할 일을 해도 똑같았다. 그 다음 날 다시 보람찬 하루를 보내려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본인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 감정을 토대로 ‘현재의 미완성’이라는 제목을 지을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지만, 본인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처음부터 자아를 인식하기 위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현재의 시간에 내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쇼펜하우어는 ‘시간 속에 머무르려 하고 동시에 시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려는 이런 욕구는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말하며 시간을 의식하는 순간 삶을 의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현재는 순간일 뿐이다. 현재는 생각하는 중에 이미 과거가 되고 만다...그래서 시간에 얽매인 삶은 과거만을 바라

보고 사는 삶이 된다.’고 하였다.<sup>9)</sup>

‘현재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할 때부터 이미 문제는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는 자기 인식은 중요하지만 내적인 집중으로만은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sup>10)</sup>

이 부분은 앞서 말했듯, 자기 인식은 결국, 바깥으로의 시선과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과 같이, 내적으로서의 집중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력한다. 정리하자면, 주체성을 위한 자기 인식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외부와의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타인과 분리되어 생겨나는 정체성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sup>11)</sup> 그 과정 까지가 진정한 ‘자기 인식’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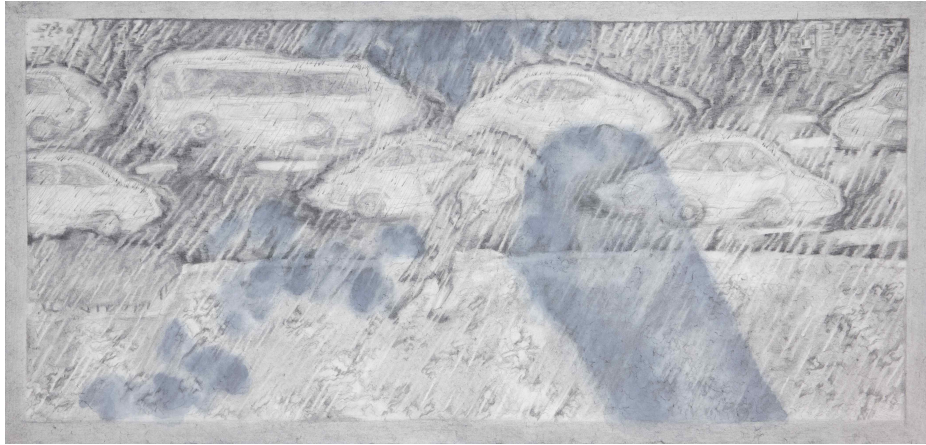


【작품10】 현재의 미완성, 순지에 연필, 먹, 137.5x66cm, 2018

9) 이동용,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쇼펜하우어<인생론>을 바탕으로』, 동녘, 2015, p21,p39

10) 페터 비에리, 문향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p46

11) 페터 비에리, 문향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p4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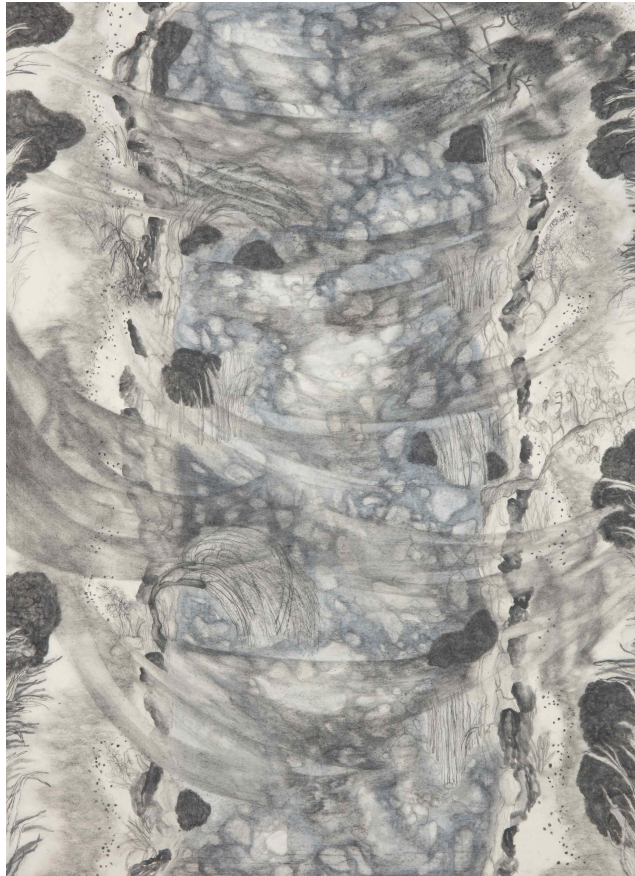
【작품11】 현재의 미완성2,순지에 연필,먹,137.5x66cm,2018



【작품12】 현재의 미완성3,순지에 연필,먹,137.5x66cm,2018

<현재의 미완성>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작품10】 , 【작품11】 , 【작품12】 모두 행동과 장소는 다르지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본인은 항상 그 순간에 머무르며 존재하려고 하였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인물들의 배경에는 달리는 자동차들과 쏟아지는 비와 같이, 역동적인 사물과 자연들에 둘러싸여 있지

만 아직까지 자신의 움직임을 찾지 못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다. 그 동안 짧고 불안정한 선들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과 달리, 명암과 그림자를 넣음으로 화면에 깊이를 넣어 보려고 노력 했다. 그림 속 인물들이 어떤 특정 시간대와 날씨,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그리려 했기 때문이다. 선 또한, 단편적이고 습관적으로 쓰던 선을 조금 벗어나고자 좀 더 치밀하게 겹을 쌓아나가면서 밀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본인은 연필을 사용하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고, 현재는 연필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한다.



【작품13】 청계천,순지에 연필,파스텔,162.0x130.3cm,2018

【작품13】은 표현에 있어서 다른 시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작품13】은 흐르고 있는 청계천의 물의 모습을 중점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희미하게 그렸다. 【작품13】속 인물은 앞서 인물들과는 달리 걸어가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본인은 이러한 모습들도 흐름에 따라 몸을 맡기며 움직이고 마는 사람들의 태도를 부여하며 바람 속에 흩어져 사라지는 장면으로 그려 나갔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때때로 바람이 많이 등장한다. 바람은 주로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옷자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은 가장 먼저, 바람이나 햇볕이 형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체험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릴 때 특정 시간 속, 그 날의 날씨와 바람을 느끼고 있는 인물로 작업을 하곤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바람을 직접적으로 밀려오듯이 표현함으로써 흔들리는 인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현재의 미완성’에서 까지도 수동적인 인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 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 Ⅲ. 결 론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기 위한 시간과 수단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삼포세대<sup>12)</sup>에서 시작하여, 나아가 N포세대<sup>13)</sup>로 불리며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꾸역꾸역 살아간다. 그 안에는 시대에서 나오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것은 유아기, 청소년기 시절을 지나오며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본인과 같은 청년 세대들이 습득한 수동적인 태도를 벗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인이 연구한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 결정은 본인을 포함하여, 청년과 시대 안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지금은 비록 작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더 나아갈 수 있는 해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각자의 고통과 사회를 겪게 될 것이다. 잔인하게도,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밖에 없을 것이며 이 시대의 청년들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열쇠 또한, 청년들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희미하게 사라지는 본인의 모습까지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그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에 본인도 의문을 가지며

---

12) 삼포세대(三抛世代)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며, 오포세대(五抛世代)는 집과 경력을 포함하여 5가지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칠포세대(七抛世代)는 여기에 희망/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함하여 7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다. 위키 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3) N포세대(N抛世代)는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이다. 처음 삼포세대로 시작되어 'N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확장되었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대-30대의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 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삼포세대 라고 일컫는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라고 일컫는다. 위키 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작업을 해 왔는데, 연구를 통하여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자아라는 것은 본래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의 상황 속 한 사람만이 남아 있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에게나 ‘나’에 대하여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움직이는 ‘나’를 찾고 지켜보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살아간다. 본인은 그 과정 속에서 대단한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며 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본인은 끝까지 자신에 대하여 모를 것이며, 표현을 하려고 할수록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그 과정 자체에서 삶의 의지를 찾을 수 있었다. 본인은 때로는 삶의 바탕을 가꾸는 것보다는 가치가 삶을 이끄는 때가 있다고 믿으며, 작업과 삶을 대하는 태도로써 바로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자기 인식의 이유와 내용을 찾아보았고, 이를 통하여 자기 인식이 이 시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신체와 인물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본인은 작품을 하면서 항상 같은 소재를 반복하여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왜?’라는 질문을 가지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찾고자 했는데, 자기 인식을 통한 연구가 본인 작업에 조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하여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물과 신체는 그 동안 많은 화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져 왔으나, 본인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늘 고민해 왔다. 연구 과정을 통하여 인물

과 신체의 다양한 해석을 살펴 볼 수 있었고 재료와 표현 또한 해석에 따라 제 각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인물과 신체가 스스로 말하는 ‘언어’에 대하여 집중하여 재료적인 표현 방법을 넓히고 연필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다양한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페터 비에리, 문향심 옮김, 『자기 결정』, 은행나무, 2015

전준엽, 『나는 누구인가』, 넥서스, 2011

유홍준, 『김정희』, 학고재, 2006

서정호,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경인 문화사, 2008

이동용,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쇼펜하우어<인생론>을 바탕으로』,  
동녘, 2015

### 사이트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이주현, 『그리다, 너를』,  
아트북스, 2015

# ABSTRACT

## A Body Expression Through Self-awareness -Focused on My Work-

Park, Eun-B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Based on the works of a master's degree exhibition called 'Current incomplete' in 2018, this thesis is written to look into how looking back on yourself can affect us and give us meaning, and to study the appearance and various physical expressions of the person which appears through the work.

Art is closely connected to life, and we see life through art. I am also in the process of realizing how my own art works are related to life and finding out own life that I didn't know.

Such a process can be called a self-examination and self-growth process. Furthermore I questioned myself why I look at myself.

Since 2014, I have been painting on the subject of "Individual History." It was a process of having work conversation to face myself with the theme of living in a person's background or a greater history and an era than another.

In 'The History of the Person, 'I' was a human being who was different from time and situation, and who put in a large flow and lived passively along the flow. As time went by, I became frustrated and curious as I looked back on my work. The first was that the person "I" in the painting was limited to personal feelings, and the second was the question of why we should look at ourselves and live

looking back on the past. I thought about why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is necessary in our lives and, after all, what messages can we give to ourselves.

My work is still self-reflective and based on my own perception. In self-awareness, 'memory' is an important factor because it has a character that has to look back on the past, and I tried to express it in 'body's memory.

A person's memory is easily distorted after time passes and then stored in our consciousness. However, 'body's memory responds to itself by remembering things we didn't remember. Therefore, I think it comes not from the story but from the movement of the human body and body to speak for themselves.

Accordingly, the person and body are repeatedly shown to the person as a form of expression.

In this study by finding answers to questions, the study revealed the meaning of self-awareness and how the person and body were portrayed in the work.